

싱가포르 2021: 코로나 전환기 ‘뉴노멀’을 모색하는 싱가포르*

김종호**

국문초록

지난 2020년과 2021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중대한 변화를 겪어 온 가운데, 싱가포르는 국가와 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의 기로에서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이후의 체질개선, 즉 ‘뉴노멀’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의 총선과 2021년 4세대 총리 인선 관련 이슈들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총선에서의 노동당과 진보당의 선전은 기존 인민행동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밑바닥 민심으로부터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고,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4대 총리로 내정되었던 헝스위킷의 실각은 다음 총리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더욱 젊은 후계를 모색하도록 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지속되는 한 리셴룽 총리가 급격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이 모두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으로 젊어 아직 지켜볼 여지는 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사회내부 인종간 화합이다. 싱가포르 거주민의 인구구성 및 인구 정체, 외국인 이주민들의 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0959).

부족한 논문의 완성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남겨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부족하나마 수정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힌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교수, kimjongho@sogang.ac.kr

입, 그에 따른 인종간 화합과 다양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계 주도의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구성해 온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의 사회구조와 인종간 화합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싱가포르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또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인지 등을 정치 엘리트들과 대중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싱가포르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강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급증한 전 세계적 반도체 및 바이오 산업 수요에 주력할 것은 분명하다. 대외관계는 미중관계 속 균형외교, 다자 외교관계 모색, 아세안 중심외교 등 코로나19 이전과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다자 외교관계를 모색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 특히 국방안보분야에서 미국 중심이 아닌 호주, 인도, 중국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어: 싱가포르, 뉴노멀, 인민행동당(PAP), 노동당(WP), 미중관계, 싱가포르 인구구조, 싱가포르 정체성

I. 머리말

2020년과 2021년 싱가포르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19 대응과 ‘뉴노멀(New Normal 新常态)’ 모색이었다.¹⁾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상’의 상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아래 과연 새로운 ‘정상’은 이전의 사회와 어떻게 다를 것이며,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지 등이 끊

1) 본 논문은 2021년 싱가포르 국가리뷰를 위해 작성되었지만, 2020년 싱가포르 국가리뷰가 없다는 점과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필요할 경우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입없이 정부와 학계, 대중여론의 영역에서 지난 2년 동안 활발히 논의되어왔다. 이는 싱가포르 정치, 경제, 대외관계 등 전 분야에 걸친 가장 근본적이면서 공통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불가피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싱가포르의 과제는 그 변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뉴노멀'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후퇴한 각 분야의 정상회복을 넘어 새로운 구조적 전환으로의 진보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이며 어쩌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싱가포르 정부와 사회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며, 지금도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II. 정치

지난 2년 동안 싱가포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2020년에 있었던 총선과 2021년 4대 총리로 내정되었던 헝스위킷(Heng Swee Keat)의 사임 및 새로운 후보 모색이었다. 2020년 총선의 경우 그해 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곤욕을 치른 싱가포르 현 정권의 방역대응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했고, 2021년 4대 총리 후보의 사임은 리셴룽(Lee Hsien Loong) 정권의 연장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싱가포르의 미래를 책임질 총리 후보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2020년 싱가포르 총선거 실시와 노동당의 선전

2020년 7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코로나19

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이였다. 그 때문에 실질적인 캠페인 역시 다른 형태로 추진되었다. 선거국(Elections Department)에서는 공개적인 대중연설을 금지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거리를 둔 채 진행되는 형식의 대면 선거운동만 허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 및 온라인 선거운동이 대세로 자리잡게 되는데, 소위 디지털 미디어 선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oon 2021). 이러한 흐름이 전통적으로 중장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있는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에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주요 야당인 노동당(WP Worker's Party)의 선전이 예상되는 선거였다. 2019년 설립된 신진정당인 싱가포르 진보당(PSP Progress Singapore Party, 이하 진보당)의 득표율도 관심사였다.

주요쟁점은 단연 코로나19 대응이었는데, 도미토리(Dormitory) 기숙사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방역정책 관련 비판을 받고 있던 집권여당의 경우 최대한 경제이슈로 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야당의 경우 최대한 이 부분을 파고들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²⁾ 아울러 코로나19로 촉발된 다양한 경제, 사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노동시장, 사회적 불평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주민 정책, 사회적 안전망, 임금 격차 등과 같은 사회구조, 부의 재분배, 직업 격차에 대한 시선 등 근본적 질문이 대두되었다(Tan 2021). 특히 인민행동당과 노동당 사이의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는 최저임금(minimum wage)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야당과 ‘점진적 임금 모델(PWM Progressive Wage Model)’을 주장하는 여당 사

2) 여당인 인민행동당의 캠페인 역시 “우리의 삶, 우리의 직업, 우리의 미래”로 경제 중심의 미래지향적 이슈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노동당의 경우 “당신의 투표를 유효하게”를 슬로건으로 기존에 싱가포르 사회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 왔던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임을 강조하였다.

이의 논쟁이었다(Ho 2020).

싱가포르 정부는 최저임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시장의 가격형성에 맡기고 있다. 과거부터 꾸준히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었는데, 노동부에서 최근 이를 대체할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PWM'은 싱가포르의 국가 노동조합인 'NTUC(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에 의해 소개된 방식으로 낮은 임금의 저숙련 싱가포르 거주민들(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노동자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개념이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미 실행중이고, 현재는 크게 3개 분야(환경미화, 보안 및 경비, 조경)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과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MOM). 각 분야에 따라 2017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임금을 상승시키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최저임금제 도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봉쇄와 이동의 제한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야당인 노동당이 제기한 쟁점이었다.

선거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면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상의 경쟁이 극에 달함에 따라 2019년에 제정되었던 '가짜뉴스방지법(POFMA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이 여러 차례 발동되기도 했다. 총선의 결과는 의회 전체 93석 가운데 인민행동당 83석, 노동당 10석, 싱가포르 진보당(PSP Progress Singapore Party) 0석으로 나타났다.³⁾ 의석수로만 보면 여당인 인민행동당의 압승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3) GE2020: Full Results, The Straits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multimedia/graphics/2020/07/singapore-general-election-ge2020-live-results/index.html> (검색일자: 2021년 12월 23일)

[표-1] 2020년 싱가포르 총선(General Election) 결과 분석

정당	대표	경쟁 의석수	획득한 의석수	전체 득표	경쟁한 지역구 득표율	2015년과의 비교
인민행동당	리셴룽	93	83	1,527,491	61.23	-8.6
노동당	프리탐 싱 (Pritam Singh)	21	10	279,922	50.49	+10.74
싱가포르 진보당	탄청복(Tan Cheng Bock)	24	0	253,996	40.86	N/A

출처: The Straits Times. 2020. GE2020: Full Results

<https://www.straitstimes.com/multimedia/graphics/2020/07/singapore-general-election-ge2020-live-results/index.html> (검색일자: 2021년 12월 23일)

[표-1]에서도 보듯, 인민행동당이 모든 의석에서 경쟁한 반면, 노동당과 진보당의 경우 각각 21석과 24석만을 두고 경쟁하였다. 그 결과 노동당은 절반에 가까운 10석을 획득했고, 진보당의 경우 비록 0석에 그쳤지만, 25만 표를 얻어 (경쟁구역 한정) 40%에 달하는 지지율을 획득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이전 2015년의 선거와 비교해도 여당의 참패로 평가되는 결과였다.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하는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싱가포르의 역내 31개의 선거구로 분할되는데, 2020년 총선의 경우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단일선거구가 14곳, 4-6명을 선출하는 집단선거구가 17곳이었다. 다만 대부분의 의석수가 배출되는 집단선거구의 경우 승자독식이라 51% 이상의 득표율만 얻어도 해당 정당에서 배출한 후보 4-6명이 모두 선출되는 구조다.⁴⁾ 군소정당의 경우 49%를 득표하더라도 모두 탈락하게 되는 것으로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다.⁵⁾ 진보당이 24석을 두고 경

4) 집단선거구의 경우 최소 1명은 소수인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인종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5) 심지어 4-6명의 집단 후보 가운데 반드시 1명은 소수인종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싱가포르 정당 가운데 그 정도의 후보군을 보유한 정당은 인민행동당이 유일하다.

쟁하여 40% 이상의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반면, 노동당은 21석을 두고 경쟁하여 50.49%의 득표로 10석을 차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민행동당이 지난 2015년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몇몇 결과가 눈에 띈다. 우선 전체 의원 가운데 28명이 여성으로 이는 싱가포르 공화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다.⁶⁾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상 최연소 여성의원도 탄생했는데, 노동당 출신의 26살 라이사 칸(Raeesah Khan)이 그 주인공이다.⁷⁾ 또한, 노동당의 약진은 그들이 확고한 야당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심지어 인민행동당과 정면으로 맞붙은 6개의 선거구(21석)에만 한정시켰을 때, 노동당(279,922)이 인민행동당(274,442)보다 더욱 많은 표를 획득했다(Tan 2021). 이와 같은 결과는 싱가포르 유권자들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상술한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빈부격차 해소, 젠더, 노동, 진보 등과 같은 가치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10석에 불과하지만, 인민행동당과 그들이 구성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제동을 걸어 줄 목소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항상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정치 지형으로 비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아 온 싱가포르 정치가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서서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6) 28석 가운데 27석은 경선을 통해 선출되었고, 1석(진보당)은 군소정당을 위해 배정된 비경선의석이다. 싱가포르의 최근 여성의원 수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난 2015년에는 전체 89석 가운데 21석이 여성의원이었다. 2020년 총선에서 28석의 여성의원 가운데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24석으로 여성의원 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다.

7) 라이사 칸은 야당의 소수인종(파키스탄계 부친과 아랍계 모친) 출신 20대 여성의원으로 상징성이 있었지만, 2021년 11월 거짓 증언 관련 의혹에 휘말리면서 의원직을 사임했다.

2. 형스위킷의 실각과 4세대 리더 모색

상대적 부진으로 평가받은 인민행동당의 총선 결과가 좋지 않게 작용한 정치인이 바로 2018년 4대 총리로 내정된 바 있던 형스위킷이다(최인아 2019, 117). 사실 현 총리인 리셴룽은 이미 2010년부터 그가 70세가 되는 2021년에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도 그렇게 밝힌 바 있다(Reuters 2017). 그에 따라 2018년 여러 후보군들 가운데 형스위킷이 4대 총리로 내정되었다. 다만 그의 선발 과정과 선발 이후의 행보에는 여러 논란이 따라다녔는데, 우선 일부 여론에서 제기된 타르만 산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의 높은 인기다. 두 정치인 모두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낸 관료이자 정치 엘리트 출신으로 형스위킷의 경우 교육, 경제, 내정 등 다양한 정치 및 관료 경험을 거친 전형적인 정치 엘리트라면, 타르만은 싱가포르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 재정 관련 업무에 집중한 재정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16년 한창 4대 총리 후보군이 거론되던 당시 싱가포르인의 69%가 타르만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Tong 2016). 야후 싱가포르(Yahoo Singapore)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97명 가운데 69%가 타르만을 지지하였고, 유력하다는 형스위킷은 25%에 불과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타르만은 신속하게 2016년 9월 사의를 밝힌다(Yong 2016a).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리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인도계 타밀인(Tamil)인 그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그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2018년 11월 차기 총리 후보로 형스위킷이 공식 지명되면서

8) 타르만이 사의를 표하면서 밝힌 ‘나는 총리를 할만한 사람이 아니다(I am not the man for PM)’라는 입장이 싱가포르의 관영지 스트레이트 타임즈(Straits Times)에 실렸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기사와 그의 선언 자체가 그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Sim 2018). 심지어 여전히 여전한 타르만의 인기
에 2019년 4월에는 타르만이 직접 나서서 형스위킷이 다음 총리로
가장 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Tham 2019).

이후 2019년 3월 형스위킷이 난양공대(NTU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어느 학생과 교수가 타르만을 향한
여전한 대중적 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상당
수 싱가포르인들의 경우 아직 비중국계 총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
지 않았다고 대답한다(Wong 2019). 특히 노령계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문화·다인종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을 가진 총리는
계속해서 중국계인, 그것도 세습하는 총리인 것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을 드러내 버린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
고, 상징적인 존재로서 대통령(President)과 실질적인 국정 운영자로
총리(Prime Minister)를 선출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지금까지 8명
이 있었고, 그 가운데 중국계는 3명, 나머지는 인도계, 유라시안, 말
레이계 등 다양하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인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은 무슬림계 인도인과 말레이인의 후손으로 최초의 여성 대
통령이기도 하다. 상징적 존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다양성을 고려한
반면, 3명의 총리는 모두 중국계였다. 이러한 형스위킷의 발언은 이
후 중대한 실책으로 언급된다. 특히 비중국계 그룹과 젊은 중국계
그룹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그가 대중적 인지도와
능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리로 지명된 것에는 리(Lee)
가문과 가까운 그를 리셴룽 총리의 아들이자 현재 정부 고위직에 있
는 리홍이(Lee Hong Yi)에게 5대 총리를 넘겨주기 위한 ‘자리 지킴
이(Seat Warmer)’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었다
(Barr 2019).

그런 배경에서 2020년 총선은 후계로 지목된 형스위킷 리더십의
시험무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출마한 이스트 코스트(East

Coast) 선거구에서 6만표, 53%의 득표율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심지어 상대 노동당으로부터 40% 후반대로 거의 따라잡히는 졸전을 치르면서 체면을 구기게 된다.⁹⁾ 반면 타르만이 그의 지역구인 주롱(Jurong)에서 얻은 득표율(74% 9만표)은 인민행동당 전체 지역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었다. 절대 표수로는 앙모키오(Ang Mo Kio)에 출마한 리셴룽의 득표수(12만표)가 가장 많았지만, 그의 득표율은 71%로 타르만보다 낮게 나왔다.

이후 2021년 4월 8일 인민행동당은 차기 총리 후보였던 형스위킷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에 이른다(The Straits Times 2021). 그의 4대 총리 후보 사퇴에 대해 인민행동당의 공식 입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부총리(DPM Deputy Prime Minister)이자 경제 정책 및 예산 전반을 관할하는 그의 업무가 후계 승계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막중하다는 것이었다(Prime Minister's Office 2021). 물론 공식 입장 이면에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리셴룽의 의중이 있었는지, 혹은 형의 잦은 실책과 비호감도, 의혹 등이 작용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의 4세대(4G) 리더십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형의 사임 이후 4세대 정치인 가운데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이들은 4명인데, 첸춘싱(Chan Chun Sing 51), 옹예쿵(Ong Ye Kung 51), 로렌스 윙(Lawrence Wong 48), 데스몬드 리(Desmond Lee 41)다. 이 가운데 윙과 리는 2020년 11월에 인민행동당 정부 내각에 들어선 젊은 정치인들이다(Ong 2021c).¹⁰⁾ 4대 총리와 그 파트너들에게 주어질 과제는 향후 최소 10년간 이어질 싱가포르의 전환을 이끌어야

9) 다만 형스위킷의 경우 총선 직전 출전 선거구가 탐피니스(Tampines)에서 이스트 코스트로 갑자기 바뀌었다.

10) 모두 선거 혹은 리셴룽 총리에 의해 발탁되어 21세기에 정치를 시작한 이들로 지금은 집권 내각에서 다양한 정부부처의 장관급 고위관료로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다. 자세한 경력은 Ong(2021c) 참조.

한다는 것이다.¹¹⁾ 무엇보다 유권자의 60% 이상이 1965년 건국 이후 출생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공화국 싱가포르에서 태어나서 ‘싱가포리안(Singaporean)’으로 교육을 받아 그 정체성이 강한 대다수 인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중개무역 및 제조업 중심 싱가포르 경제의 전환기를 이끌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날로 극심해지는 미중경쟁과 다자외교 모색이 주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3.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인종간 화합과 ‘싱가포리안’ 정체성의 재모색

지난 2021년 8월 국경절(National Day) 연설에서 리셴룽 총리가 언급한 싱가포르 사회의 도전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 취업비자 보유자에 대한 불안 해결, 인종과 종교간 화합 관리 등 세 가지였다(Lee 2021).¹²⁾ 앞의 두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슈들이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는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숙련노동자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이 이미 실시되고 있고, 외국인 취업비자 보유자에 대한 처우는 인구 유동성이 성장의 밑거름인 싱가포르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문제다. 다만 세 번째 인종과 종교간 화합은 싱가포르와 같이 건국(1965년) 이전부터 백 수십년 동안

11) 지난 총리들의 집권기간을 보면, 건국 이후 기준으로 리관유(Lee Kwan Yew 1965-1990) 25년, 고촉통(Goh Chok Tong 1990-2004) 14년, 리셴룽(2004-현재) 지금까지 18년째다. 이러한 경향을 봤을 때 향간의 의혹대로 4대 총리가 5대 총리에 리셴룽의 아들을 앉히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 할지라도 최소 10년은 집권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12) 원래 싱가포르내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는 ‘ethnic’으로 보통 종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본문에서 다루는 논의에서는 정치권 및 언론에서 주로 ‘race/racial’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race’ 역시 종족으로 지칭해도 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인종으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고, 구분해서 쓰는 현지의 분위기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인종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형성해 온 공동체에서는 그리 새로운 것 없는 문제의식이다.

흥미로운 것은 2021년 싱가포르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게 제기되고, 활발하게 논의된 문제가 바로 코로나19 시대 싱가포르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 유지와 인종간 조화의 문제였다는 점이다. 상기 연설에서도 리셴룽 총리는 ‘인종간 화합 유지법(Maintenance of Racial Harmony Act)’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한다(Lee 2021). 이는 1990년 통과한 ‘종교간 화합 유지법(Maintenance of Religious Harmony Act)’의 쌍둥이법으로 30년이 지나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11월에는 정책연구소(Institute of Policy Studies)와 난양공대(NTU)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회에서 4세대 지도부의 일원이자 차기 총리의 후보군 가운데 하나인 로렌스 윈 재정부 장관(Ministry of Finance)이 인종적 차이에 기반한 ‘부족주의(tribalism)’적 관행이 다시 뿌리내려 사회 질서를 해칠 것을 경계하고, 싱가포르의 내셔널리즘은 각 인종별 ‘부족주의’의 합이자 혼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ong 2021; Tham 2021). 그 외에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인종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만의 정체성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2021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우선 직접적으로 2020년 고조된 인종혐오 감정과 2021년 발생한 일련의 인종갈등 사건을 들 수 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반중국 정서와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으로 인한 저개발 국가 출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정이 핵심이다(Thiagarajan 2020). 2021년에는 5월 인도계 여성이 중국계 남성에게 공격을 받은 사건, 6월 전 폴리테크닉(Polytechnic) 강사가 다른 인종간 커플에게 같은 인종끼리 만나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모욕을 준 사건, 같은 달 한 여성이 이웃의 종교의례를 방

해하기 위해 벨을 누른 사건 등 지역내 인종간 갈등이 다양하게 발생하기도 했다(Ng 2021).

이러한 경향과 사건들이 결국 앞서 설명한 리셴룽 총리의 ‘인종간 화합 유지법’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있는 모든 인종차별 관련 법안들을 통합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예고되었다(Osman 2021). 그 일환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때 투둥(tudung)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도 했다(MOH 2021). 실제 2021년 12월 UN 산하 인종차별 해소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싱가포르 정부와 사회가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UN CERD 2021).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젊은 세대의 64%가 코로나19 시기 동안 인종주의가 심해진 것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그중 81%가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응답자 중 말레이계와 인도계의 2/3가 살면서 인종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Ng 2021).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대두된 싱가포르 인구 구성상 변화의 조짐과 인종간 관계 재설정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싱가포르는 중국계가 인구구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다. 평균적으로 75% 정도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도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말레이계(15%), 인도계(5%), 유라시안 등이 소수인종을 구성하고 있다. 다만 201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현상은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정체 경향이다(DOS). 특히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계의 출산율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확실히 정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 정체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고 있는 현상으로 싱가포르 역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부유해지면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전체 인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9년까지 이 전체 인구의 성장을 견인해 온 것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존재다. 그리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대다수는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오는 말레이인들과 중국 대륙에서 건너오는 신이민자들이다. 그 외에 남아시아 및 주변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서 건너오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있다.

[표-2] 1990년~2020년 싱가포르 입국 중국인 이민 통계 (단위: 명)

연도	중국인 이민자
1990	150,447
1995	191,075
2000	250,198
2005	299,651
2010	365,797
2015	419,634
2017	462,632
2019	380,145
2020	426,434

출처: U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17; 2019; 2020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외국인 숫자에서 중국인 이민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위는 말레이시아인으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백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인구의 유동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20년 기준 42만이 유입된 중국인들이다. 즉, 2019년 기준 570만의 전체인구에서 170만이 외국인으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말레이인과 중국인이 거의 대

부분이다. 게다가 싱가포르 거주민(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숫자는 지난 3년간 400만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소위 ‘싱가포르인(Singaporean)’이라 불리는 거주민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과연 항상 7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던 중국계 거주민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¹³⁾ 인구는 정체되어 가고 있고, 이주민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증감을 견인하는 현실에서 이주민의 비중이 인구구성에서 중요해져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싱가포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계 거주민들이 중국계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중국인 이민자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Cooper III 2020).¹⁴⁾ 그리고 이는 곧 중국계 거주민이 아닌 중국 공민(公民 중국 시민권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중국 대륙 정부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다른 이주민들, 특히 말레이시아인들의 유입을 더욱 장려할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인구구성에서의 중국계의 압도적 우위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

이주민들의 유입을 급격히 줄일 수도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향후 싱가포르에 필요한 노동인구의 절대다수가 외부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이미 싱가포르는 인구의 30%가 외국인 거주민이고, 그중 절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거주민 가운데 주노동층인 20-64세 인구

13) 사실 ‘싱가포르인(Singaporean)’이라는 용어는 학문분과별로 다양한 함의가 있다. 다만, 본문에서는 싱가포르의 인구구성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구분하는 ‘거주민(resident)’과 ‘비거주민(non-resident)’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싱가포르인은 거주민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14)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Cooper III 2020).

15) 싱가포르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벱섯모양으로 평균나이(41.5세)인 40-50대 사이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는 15-25년 뒤에는 절대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DOS 2022).

가 256만(2021년 기준)임을 생각해 본다면, 싱가포르의 명백히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의존해서 유지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DOS).

이는 구이민자인 중국계 싱가포르인과 신이민자인 중국 공민의 공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그리고 싱가포르 통치의 관점에서 인구구성상 중국계의 비중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싱가포르 통치에서 인구구성 속 인종 구분과 비중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계 싱가포르인의 경우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중정서를 가지고 있고(Cooper III 2020), 중국에서 건너온 신이민자보다는 다른 말레이계 및 인도계 싱가포르인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즉, 인종은 중국 신이민자에 가깝지만,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말레이계, 인도계와 함께 ‘싱가포르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김중호 2021).¹⁶⁾

그렇게 싱가포르의 ‘국민’이 된 이들이 인구정체로 인해 중국계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사실만으로 중국인 신이민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든 중국계 중심의 국가를 만들려고 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설사 싱가포르 정부에서 그런 의도로 중국인들의 이주를 장려한다 해도 새로운 이주민의 유입을 경쟁상대의 증가로 여기는 거주민, 특히 젊은 세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비중국계 이주민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 특히 말레이계 - 기존 중국계 우위의 인구구성이 조금씩 약해지는 현상을 여전히 중국계가 정치와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여기는 거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싱가포르의 인구구성이 가진

16) 싱가포르인들이 종족구분을 최소화하고, 그 구분을 뛰어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역사적 배경과 과정은 김중호(2021) 참조.

딜레마다. 싱가포르 거주민의 인구구성 및 인구 정체, 외국인 이주민들의 유입, 그에 따른 인종간 화합과 다양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주목받고 있다(Wong 2020; Ong 2021a).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싱가포르 사회의 고민, 즉 중국계 주도의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구성해 온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의 사회구조와 인종간 화합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싱가포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은 또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인지 등을 정치 엘리트들과 대중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지난 2년간 싱가포르 정치권과 사회의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4. FICA(외세간섭대처법)와 예일-NUS(싱가포르 국립대) 폐쇄

상술한 부분 외에 2021년 하반기 싱가포르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는 10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된 ‘외세간섭대처법(FICA 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이었다. 요지는 해외에 기반을 둔 싱가포르 역내 단체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단속할 권한을 국가가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사회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특정 국가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이끌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목적은 ‘싱가포르의 주권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싱가포르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Rei 2021). 그러나 이 법이 싱가포르 내외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내정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학계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싱가포르 내외부의 건강한 토론이나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해 국가가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2019년 통과되어 큰 논란을 일으킨 ‘가짜뉴스법(POFMA)’과 함께 싱가포르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 통제

강화 시도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Chong 2021; George 2021).¹⁷⁾

교육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2021년 8월 27일 싱가포르 국립대(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발표한 예일-NUS 대학(Yale-NUS College)의 폐쇄 소식이다. 2013년 예일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연합하여 교양(Liberal Arts)과정 중심의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예일-NUS 대학은 미국의 최고 대학과 아시아 대학 사이 연합 캠퍼스 설립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 모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생 수급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재정적 불안정성이 겹쳐 폐쇄를 결정하였다. 예일대학은 2022년부터 철수하지만, 대학은 현재 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Ang 2021). 예일-NUS 대학의 폐쇄 발표는 싱가포르 학계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유지 비용을 이유로 폐쇄를 정당화하려 한 정부의 무지함, 내부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없이 진행된 일방적 의사결정과정의 부당함,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 침해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Lim 2021; Ooi 2021; Weiss 2021).

Ⅲ. 경제

1. 코로나19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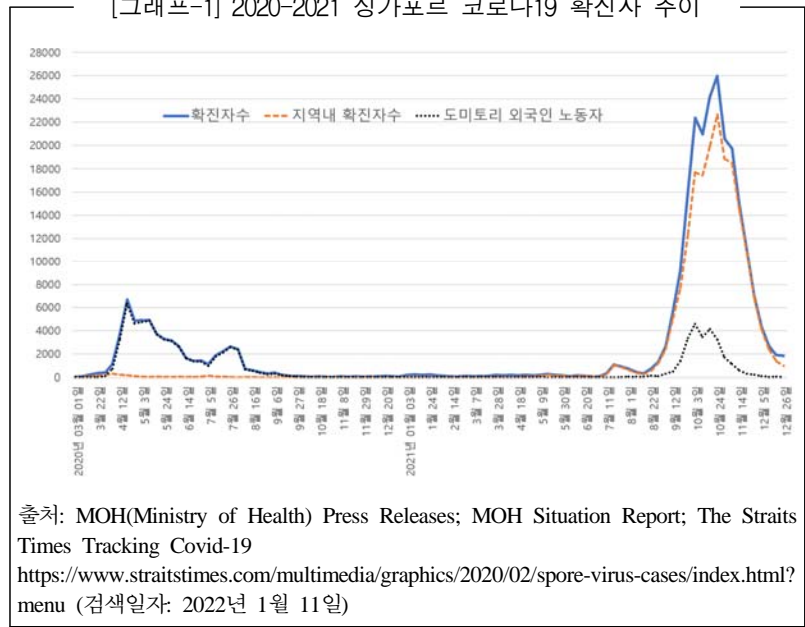
싱가포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시작은 2020년 1월 23일 해외 유입 사례부터다. 그 이후 싱가포르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일별보고(Press Releases)를 통해 감염자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최초 발생 이래 2021년까지

17)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여러 루트로 싱가포르 내정과 여론의 흐름에 간섭하려는 중국의 개입을 염두에 둔 법이라는 생각이다.

싱가포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79,405명, 사망자 828명에 달한다 (MOH Daily Report). 무엇보다 2021년까지 전체 확진자 수 대비 사망률이 대략 0.29%에 불과하여 높은 백신률과 함께 싱가포르 방역 체계의 신속한 대응 및 우수한 의료 인프라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2020년 싱가포르 전체 국가 예산에서 대략 1,000억 달러(119조)를 추가로 편성하여 통합(Unity), 회복(Resilience), 연대(Solidarity), 인내(Fortitude)라는 명목의 예산으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차례로 지급했다(Lim 2021b). 예산의 쓰임새는 전국민 재난지원, 소상공인 지원, 산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 격리 및 수용,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비용 등이었다.

싱가포르 코로나19 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확진자 수 증감추세는 아래와 같다.

[그래프-1] 2020-2021 싱가포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그래프-1]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난 2년간 싱가포르 코로나 19 확진자 수 추세에는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2020년 4월 중순의 급증과 2021년 10월에서 11월의 급증이다. 첫 번째 급증의 경우 기숙사(도미토리) 거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감염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정부와 사회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그들이 처해있던 열악한 환경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고, 언론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적받은 바 있다(김중호 2020; 김희숙, 양영란 2020; 김희숙 외 2020; Koh 2020; Lin 2020; Ong 2020; Pang 2020).

두 번째 급증은 지역 내(community) 확진자 수의 급증이 원인이었는데, 2021년 싱가포르의 높은 백신 접종률이 계기가 되었다. 싱가포르는 2020년 12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허용한 국가로 지금까지 국가 백신 프로그램(National Vaccination Programme)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12세-59세까지의 시민권 및 영주권자 보유자, 그리고 각종 비자를 보유한 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꾸준히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MOH).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고, 2021년 9월 18일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450만, 2차 접종 완료자 440만으로 전체인구 545만 대비 2차 접종 완료가 80%에 달했다(MOH).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9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소위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이름 아래 어느 정도 봉쇄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을 선회했지만, 정책실시 이후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0월, 11월에는 2만 명대를 넘나들게 된다. 게다가 11월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부스터샷’이라 불리는 3차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1월 8일 기준 2차 접종 87%(1차 접종 89%), 3차 접종 46%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어 2차 접종률은 그리 높아

지지 않은 가운데,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경제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활발한 인구 유동성이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기준 싱가포르 전체인구 570만 가운데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인구는 400만, 외국인 거주자는 170만으로 인구의 30%에 달했다. 그 가운데 150만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이들 외국인 노동 인력은 무역 및 금융허브로서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과 내부 저임금 건설직 및 서비스 직종의 노동 시장을 뒷받침해 주는 존재였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이러한 외국인 인구의 유입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였고, 여기에 의존하고 있던 싱가포르 산업 분야에 치명타를 안겨주었다. 실제 2020년과 2021년 싱가포르 전체인구는 각각 568만, 545만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수는 400만 정도(2019년 400만, 2020년 400만, 2021년 398만)로 일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줄어든 인구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 이주민임을 짐작할 수 있다(DOS). 싱가포르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인적, 물적 이동성의 제한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의 변화는 정치와 사회뿐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을 비롯한 대외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2.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제조업의 선전

싱가포르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매우 높다. 전체 GDP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중개무역을 통한 수출입 무역이고, 상술한 것처럼 인구구성과 저숙련/고숙련 노동시장의 형성 역시 해외 인구 유입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의 무역 의존도(수출입의 대 GDP 비율)를 보면, 2018년 수출 109%, 수입 98%, 2019년

수출 101%, 수입 98%, 2020년 수출 96%, 수입 110%로 대외요소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출입 무역이 주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한국과 비교해 봐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대한민국 통계청).¹⁸⁾ 코로나19는 바로 이 대외요소를 상당수 차단해버렸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른 봉쇄(락다운),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격리 및 진료, 해외 유입에 대한 통제는 높은 인구 유동성을 제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상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는 없었다.

[표-3] 2020-2021 싱가포르 경제지표

명목	2020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GDP(\$)	1,229억	1,026억	1,147억	1,227억	4,691억	1,255억	1,271억	1,305억
실질 GDP(%)	-0.7	-13.2	-5.8	-2.4	-5.4	1.3	14.7	7.1
상품 수출(\$)	126,909	113,911	127,218	133,627	515,645	143,042	147,622	154,001
상품 수입(\$)	121,091	102,480	113,126	116,806	453,467	124,360	131,806	136,971
고용 (천명)	-19.5	-131.5	-32.1	-7.8	3,597.7	+6.7	-19.3	-9.4
실업률 (%)	2.4	2.9	3.6	3.3	3.0	2.9	2.7	2.6
물가 (%)	+1.5	-18.6	-10.1	-0.1	-0.2 (2019년 대비)	+0.8	+18.2	+6.1

출처: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0.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1st-4th Quater & Year;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1.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1st-3rd Quarter.

18) 한국의 경우 2018년 수출 35%, 수입 31%, 2019년 수출 32%, 수입 30%, 2020년 수출 31%, 수입 28%이다.

2021년 12월에 발표된 예측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2021년 4분기 실질 GDP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3분기보다 조금 낮아진 5.4%로 예측되고 있었고, 2021년 전체의 경우 7% 정도의 성장률로 예측된 바 있다(Chen Lin 2021). 그리고 실제 2021년 성장률은 7.2%였는데, 4분기는 3분기에 비해 7.1% 성장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측보다 조금 더 성장하였다(Ovais Subbani 2022). 2020년에서 2021년 싱가포르 경제지표의 특징은 2020년의 하락과 2021년의 회복 및 성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0년의 경우 실질 GDP가 2분기 기준 -13.2% 하락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연도 전체 -5.4%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2분기의 14.7% 성장에 힘입어 전체 연도 7.2%의 성장을 보임으로써 전년도 하락을 회복한 것을 넘어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다.

상품의 수출입과 물가 역시 2020년의 하락을 2021년의 지표가 매워주는 추세다. 고용과 실업율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지표인 고용은 2021년 1분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2020년 2분기 13만 명이 덜 고용되었다는 수치가 눈에 띈다. 반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률은 2020년 3, 4분기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고용에서 가장 나쁜 지표를 보인 2020년 2분기의 실업률이 2.9%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산업 분포에서 거주민에 대한 고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의 성장 때문으로 예측된다. 아래의 표는 싱가포르 산업별 성장률을 정리한 것이다.

[표-4] 2020-2021 싱가포르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2020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금융/보험	0.8	3.4	3.2	4.9	5.0	4.7	9.1	9.0
제조업	6.6	-0.7	10.0	10.3	7.3	10.7	17.7	7.2

정보통신	3.5	-0.5	2.0	2.6	2.1	6.4	9.6	10.4
기업 및 전문직 서비스	-3.3	-20.2	-15.2	-7.5	-9.7	-4.5	9.4	4.4
기타 서비스	-3.4	-17.8	-8.5	-5.7	-8.9	0.5	15.8	4.4
건설	-4.0	-59.3	-46.6	-27.4	-35.9	-22.7	106.2	66.3
도매 소매	-5.8	-8.2	-4.3	1.8	-2.4	3.5	2.9	5.9
교통 /저장	-8.1	-39.2	-29.6	-27.4	-25.4	-16.5	20.9	8.2
숙박업 /요식업	-23.8	-41.4	-24.0	-19.7	-28.7	19.0	13.2	-4.1
부동산				-10.8	-14.2	-3.9	25.8	16.8

출처: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0.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1st-4th Quater & Year;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1.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1st-3rd Quarter.

* 상기 데이터는 연도 기반 성장률(Year on Year)임.

2021년 전체로 보면, 2020년에 비해 제조업(12.8%)의 성장률이 특기할 만하다(MTI 2022). 다른 산업의 2021년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던 건설(18.7%)의 회복을 제외하면 소폭(4%-6%) 상승한 것에 그쳤고, 이마저도 2020년의 하락세를 완전히 회복한 모습은 아니었다(MTI 2022). 즉, 금융과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경우 2020년 전반기의 급격한 하락세를 감안하면 2020년 하반기와 2021년의 성장은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반면, 제조업은 애초에 하락세가 경미한 상황에서 급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제조업의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2020년 7.3%, 2021년 12.8%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성장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싱가포르 산업구조의 비중은 제조업 20.9%, 도소매업 17.3%, 기업 서비스업 14.8%, 금융보험업 13.9%, 운송저장업 6.7%, 정보통신업 4.3%, 건설

업 3.7%, 숙박요식업 2.1%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KOTRA 2021).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다면 싱가포르의 경제와 산업구조는 더욱 제조업이 강조되는 방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징후들이 보인다.

첫째, 설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인적/물적 이동과 교류를 회복하기에는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조업 중심의 강화, 혹은 재편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산업군들이 대부분 인적/물적 교류와 이동이 중요한 서비스업, 무역업, 숙박, 교통, 부동산 등이었다는 점도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둘째, 싱가포르 제조업에는 반도체 중심의 전자, 화학, 바이오메디컬, 물류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2010년대 이후에는 전자와 바이오가 핵심이다. 싱가포르 상공부(MTI)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성장을 견인한 산업은 제조업 가운데 전자전기 분야였고, 무엇보다 전 세계적 반도체 수요에 따른 관련 부품생산의 증가가 핵심이다(MTI 2022).¹⁹⁾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도 꾸준한 수요가 보장된 5G,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 반도체 수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 셋째, 전자전기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중요한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바이오와 지리적 위치의 이점을 살린 석유화학분야 역시 싱가포르 제조업의 계속되는 성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금융보험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산업군에 해당한다. 산업의 특성상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과 오히려 비대면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산업의 급격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특히 2021년 2분기와 3분기의 성장이 주목

19) 2021년 4분기 산업별 성장률은 제조업 14%, 건설 2%, 도소매업/교통/저장 4.3%, 정보통신/금융/전문직 6%, 숙박/요식업/부동산/기타 서비스 3.1% 였다(MTI 2022).

할 만하다. 정보통신 분야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상술한 것처럼 2020년에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것(2019년 2.3%, 2020년 3.0%)과 2021년에 다시 내려가 평균을 유지한 것 역시 제조업 직군과 금융보험 직군이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꾸준히 고용해 주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고용시장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12.5%로 75.6%의 서비스업 직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 역시 사실이다(MOM).²⁰⁾ 서비스업과 건설 등 크게 쇠퇴한 산업군은 대부분 고숙련 전문직이나 저숙련 일용직 할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들의 인구 유동성이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싱가포르 거주민들 역시 대부분 서비스 직군에 종사하고 있는데, 줄어든 외국인 노동자만큼 고용이 보장되어 고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난 효과를 보인 것도 실업률 유지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MOM).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경제와 사회의 핵심 이슈는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거주민인 ‘싱가포리안’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비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싱가포르의 자체적인 경제적 역량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였고, 그것이 곧 ‘뉴노멀’의 중요한 과제였다. 실제 2021년 8월 국경일 기념 연설에서 리셴룽 총리의 경제 관련 강조점은 산업 허브로서의 지위 유지, 더욱 많은 해외 투자 모집, 싱가포르 자체 기업 및 기업이 성장 등 세 가지였다(Lee 2021). 코로나19가 싱가포르 경제에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개 무역항으로서 대외의 존도를 회복하는 가운데, 자체적인 산업의 성장과 거주민 중심 경제 활동 증진이었다.

20) 나머지는 건설이 11.2%로 나타났다.

IV. 대외관계

2020년에서 2021년 싱가포르 대외관계의 핵심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극심해진 미중간 패권경쟁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해양 패권경쟁에서 전략지역인 동남아시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규모는 작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드물게 질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다. 그 모순적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싱가포르가 제한없는 자유무역을 통해 동남아시아 역내, 더 나아가 전 세계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특징을 활용한 물류 환적(transshipment) 및 금융의 허브라는 지위야말로 싱가포르 대외관계의 핵심이다. 즉, 싱가포르의 성장동력은 국제관계 및 국제시장의 원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이고, 식민시기부터 이어진 자유무역향으로서의 축적된 경험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해왔다.²¹⁾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국제관계에서의 공정과 중도를 중시해왔고, 그런 이유로 무역과 기술 관련 보호주의, 강대국 사이의 제로섬 경쟁 등은 싱가포르의 역내의 안전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항들이라고 인식한다(Cooper III 2020). 그 때문에 싱가포르의 리더들은 강대국간 극한 경쟁을 지극히 경계하고, 중도를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 및 중국과도 이러한 인식아래 동시에 관계를 맺어왔다.

다만 오랜 영국 식민의 유산인 서구식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인프라

21)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싱가포르가 소국으로써 살아남기 위해 고수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시스템이다. 지난 2019년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도 그렇고,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UN 산하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한 연설에서도 리셴룽 총리가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싱가포르 생존의 길이라는 점이다. 즉, UN과 산하의 관련 국제기구들, WTO, IMF, World Bank 등과 같은 제도에 의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공정한면서도 자유로운 국가간 관계를 의미한다.

라와 75% 이상의 중국계 인구는 미중관계 속 싱가포르의 위치를 그리 쉽게 규정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싱가포르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여긴다. 지난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장소로 싱가포르가 결정된 것 역시 이러한 두 국가의 인식이 맞물린 결과다(최인아 2019). 2021년 8월 23일과 9월 14일,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Kamala Harris)와 중국의 외교부장인 왕이(王毅)가 차례로 방문하여 싱가포르와의 우호적 관계를 재확인하는 일도 있었다(Jaffe 2021; 人民日報 2021).

이러한 배경아래 미중관계 속 싱가포르의 대응은 간단하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정부 관련 보고서, 언론, 학술연구가 내린 결론은 싱가포르는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둘 모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정치외교, 국방안보 분야, 중국의 경우 경제 분야에서 동시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다자외교, 아세안 중심의 외교라는 것이다(Cooper III 2020; Kuok 2016; Ortmann 2016; Choong 2020; Chatys 2019; Cai 2013; 임시연 2020; 최인아 2019; 강윤희 2018). 미중관계 속 싱가포르는 어느 한 편을 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려 해왔다. 여기에서 원칙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른 국제법, 관행 혹은 국제질서에 기반한 원칙이다. 소위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안전과 이득(“blessedness of not making a choice.”)을 추구한다(Choong 2020).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중경쟁 속 싱가포르의 균형적 대외관계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분야는 백신이다. 백신의 경우 상술한 것처럼 주로 서구권에서 공식 인증된 모더나, 화이자만을 사용하던 싱가포르는 2021년 6월경에 중국산 시노백(Sinovac)을 특별히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Ives 2021).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깊은 싱가포르의 입장에서 시노백 접종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었다. 무엇보다 중국이 입국시 자국의 백신인 시노백 접종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즉, 현재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주요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시노백으로 대표된다.

다만 이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만이 국가 백신 프로그램(National Vaccination Programme)에 따라 제공되는 백신이고, 시노백의 경우 특별 접종 경로(Special Access Route)를 통해 제공되는 백신으로 구분하고 있다(MOH). 싱가포르 당국에 따르면, 이 차이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국제 기준에 따라 그 효용성과 효과가 입증된 백신들인 반면, 시노백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MOH). 즉, 시노백은 중국과의 교류가 잦은 싱가포르인들과 다시 귀국해야 할 내부 중국인 이민자들의 요구로 인해 특별히 접종을 제공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는 싱가포르내 시노백 허용이 공식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수급의 어려움때문이 아닌, 대중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실제 2021년 5월 15일에 중국 당국은 발표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백신을 맞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공표하기도 했다(China Briefing 2021).

그에 따라 싱가포르는 6월 중순부터 시노백 백신을 들여와 민간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6월 초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시노백의 사용을 긴급용으로 제한하여 승인한 뒤부터는 24개의 민간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대상은 싱가포르 내의 중국 공민(公民), 혹은 중국으로 건너가야 할 사정이 있는 싱가포르인들이다(Ives 2021). 문제는 모든 중국산 백신이 국제사회 및 학계에서 공인하는 의학저널이나 기관으로부터 검증된 백신이 아니라는 것이다(Mcgregor 2021). 전문가들은 시노백을 비롯한 중국산 백신의 효용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7월 기준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90% 이상 백신 예방 효과가 있음이

실질적으로 보고되는 반면, 시노백의 경우 50%를 겨우 넘긴다고 보고되고 있다. 동시에 곳곳에서 시노백이나 시노팜이 백신예방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케이스와 보고가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Dou 2021).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백신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접종이 아닌, 중국 입국비자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즉, 실질적인 예방은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으로 하고, 중국산 백신은 중국 당국에 보여주기 위한 접종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외교에 대한 싱가포르의 대응으로 두 종류의 백신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백신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미중관계 속 싱가포르의 스탠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다 준 새로운 변수로써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중관계 속 균형외교와 더불어 싱가포르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중의존을 벗어난 인접국과의 다각화 모색과 아세안 중심외교다(임시연 2020, 137). 코로나19 시기에도 싱가포르는 다양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구조의 중대한 변화는 기존 미국 안보동맹의 핵심이었던 양자 동맹 중심의 전통적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기반 관계망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²²⁾ 미국은 인도를 중심으로 좀 더 중국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여러 국가

22)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바퀴의 축에서 부채처럼 퍼져가는 바퀴살과 같은 형태의 동맹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 전략을 가리킨다. 대서양의 경우 NATO 중심 지역 동맹을 통한 안보 전략을 추구한다면, 이 지역의 경우 미국을 축으로 개별 국가들(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등)과의 양자 안보동맹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미국을 바퀴의 축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개별적인 동맹 관계를 바퀴살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혹은 부채의 중심과 부채살로 묘사하기도 한다.

들을 엮는 전략을 구상중인데, 대표적으로 호주, 일본, 아세안 국가들을 잇는 관계망이 그것이다. 이미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쿼드(Quad, US-Australia-India-Japan Quadrilateral Dialogue)’라는 이름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고, 그 맥락에서 싱가포르는 인도, 호주,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극한으로 접어들지도 모를 미중경쟁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와 인도의 관계는 2021년에도 여전히 싱가포르가 인도의 주요 FDI 투자국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9월에는 두 국가가 28번째 합동해군훈련(Singapore-India Maritime Bilateral Exercise)을 진행할 정도로 안보적 측면에서도 긴밀한 관계다. 이번 합동해군훈련에서는 3일동안의 남중국해 군사작전 수행이 포함되어 있었다(The Economic Times 2021). 싱가포르와 호주의 관계는 2015년 양국의 관계가 경제, 국방, 과학기술 등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되면서 매년 긴밀해지고 있다. 이후 두 국가의 정상은 해마다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2021년에도 호주의 총리 모리슨(Morrison)과 리셴룽이 6월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해양기술과 항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3천만 달러 동반 투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8월에는 양국의 전체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12번째로 열렸다. 2020년 12월 군사훈련 및 훈련구역 개발 조약이 발효되면서 싱가포르의 무장군대가 호주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양국의 군사안보 협력이 확대되었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주변 지역 영연방 방어 조직인 FPDA(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s)에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영국과 함께 속해있기도 하다(Australia Government 2021).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싱가포르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에 속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호주, 인도, 일본, 중국 등과 독자적으로 다양한 안보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그 경향이

더욱 긴밀하고, 강해지고 있다. 상술한 것처럼 싱가포르를 중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교류가 깊지만, 지역 질서에서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제 분야에서도, 안보 분야에서도 경계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 중심의 안보 협력을 통해 이를 상쇄하려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미국 자국 중심의 안보 질서 구축 경향 및 군병력 감축 이슈 등은 싱가포르로 하여금 그 대안을 생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지금은 호주, 인도 외에도 이러한 균열을 중국이 조금씩 파고드는 형세다. 싱가포르-중국간 군사훈련 움직임과 상술한 해리슨 부통령이 방문한 직후 왕이 외교부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이 그 증거다. 2019년 10월 20일 싱가포르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는 쌍방의 전략회의, 군사교육훈련, 연합훈련 등 다방면의 군사교류를 골자로 하는 <국방 업무교류 및 안전합작회의(防務交流和安全合作協議)>를 베이징에서 맺었다. 이는 2008년에 맺은 협정의 새로운 개정판으로 두 국가의 보다 심화된 군사안보 협력을 담고 있다(海外网 2019). 이에 기반하여 2021년 6월 8일, 두 국가의 국방장관이 비대면 회담을 열고 양국의 군사안보 전략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Ong 2021b).

코로나19 이전, 냉탕과 온탕을 오간 바 있던 인접국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최인아 2019; 임시연 2020). 지난 2년 동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관계의 가장 주요한 관건은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양국의 국경과 관련된 문제였다. 도서국인 싱가포르와 반도인 말레이시아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양국의 인적이동이 활발한 만큼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다리를 대략 매일 35만 명이 이용하고 있었다(Zain 2021). 2020년 3월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양국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싱가포르에만 10만 명의 말레이시아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는데, 2021년 11월 29일 봉쇄가 일부 제한적으로 풀리면서 소수의 말레이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당일 말레이시아의 총리인 이스

마일 사브리 야코브(Ismail Sabri Yaakob)가 직접 싱가포르측 출입국 심사장을 방문하여 마중 나온 리셴룽 총리의 환영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Brock 2021). 양국의 국경이 지난 코로나19 시기동안 봉쇄되어 있었다고 해서 관계가 끊겼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0년 3월 17일에는 리셴룽 총리가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였던 탄 스리 무하이딘 야신(Tan Sri Muhyiddin Yassin)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응팀을 만드는 것에 합의한 이후 말레이시아 측에 각종 의료 지원품, 테스트 키트 등을 제공해주기도 했다(MOFA; Baharudin 2021).

미중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외교 다각화의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싱가포르는 아세안(ASEAN)을 중심에 두는 대외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을 지낸 싱가포르는 2021년 브루나이가 의장국인 아세안 관련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무엇보다 아세안은 싱가포르가 작은 국가로서 미중 경쟁 관계 속에서 균형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고, 싱가포르는 아세안과 같은 블록 단위로 대외관계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왔다(Kang 2022).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리셴룽 총리는 10월 26일에서 28일 사이 개최된 ‘38회 & 39회 아세안 회의(ASEAN Summits)’에 참석하여 아세안 단위의 지역 경제, 안보 협력을 논의하였다(Prime Minister’s Office 2021). 12월에는 아세안과 G7 외무장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백신, 공공보건안보, 경제성장, 지역내 안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MOFA 2021). 2020년과 2021년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맺어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양국은 신속한 지역 봉쇄를 통한 감염확산의 최소화, 적극적인 수급과 보급을 통해 달성한 80% 이상의 백신 접종률(2차), 수출입 경제 회복 강조 등과

같은 공통점을 매개로 더욱 양국간의 관계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가장 먼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 국가들이기도 하다. 2020년 9월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싱가포르의 외교부 장관인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과 협의하여 9월 4일부터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4월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비비안 장관이 협의하여 양국의 공통관심사인 디지털 경제 관련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논의하기도 하였다(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이 협정은 양국의 노력 끝에 12월 15일 타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 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역내 디지털 상거래의 허브로 다양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보건분야와 외교 및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관계 역시 진전을 보였는데, 지난 2021년 6월 24일에는 양국의 외교장관이 직접 만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과 보건·방역 분야의 다자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의 6월 방문 일정에는 리셴룽 총리와 회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리셴룽 총리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 따른 한-아세안 협력 및 싱가포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싱가포르 관계의 다각화 및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박재우 2021;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12월 23일에는 서욱 국방장관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응옹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함께 CBRNE(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폭발물) 방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사이버 안보, 테러위협, 한반도 평화, 미중간 전략적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체

적으로 양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비슷한 대응전략 및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관계를 다각화하면서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싱가포르 관계는 한-아세안 관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V. 맺음말 - 전망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싱가포르가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싱가포르 정부는 ‘뉴노멀’이란 이름으로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각 분야에서 드러난 2020년과 2021년이었다. 2020년의 총선과 2021년 4세대 총리 인선 관련 이슈들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총선에서의 노동당과 진보당의 선전은 기존 인민행동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밀바닥 민심으로부터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고,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4대 총리로 내정되었던 헝스위킷의 실각은 다음 총리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더욱 젊은 후계를 모색하도록 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지속되는 한 리셴룽 총리가 급격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이 모두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으로 젊어 아직 지켜볼 여지는 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인종간 화합의 강조였다. 싱가포르는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거의 3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이주민의 존재와 인구구성에서의 인종별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단순 사회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세대

정치 리더 선발과 같은 정치 분야나 대중국 관계와 같은 대외관계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으로 유지되고 있는 각종 산업 전반의 동향과도 연계되어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싱가포르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강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급증한 전 세계적 반도체 및 바이오 산업 수요에 주력할 것은 분명하다. 실제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가 미중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외관계는 미중관계 속 균형외교, 다자 외교관계 모색, 아세안 중심외교 등 코로나19 이전과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다자 외교관계를 모색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 특히 국방안보 분야에서 미국 중심이 아닌 호주, 인도, 중국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싱가포르의 뉴노멀이 내부 체질개선에 좀 더 주력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자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강조,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정치, 미중 일변도를 벗어난 대외관계, 인구구성과 ‘싱가포르인’ 정체성의 재탐색 등의 변화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조금씩 관찰되던 것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촉발된 측면이 있다. 이는 젊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맞이할 전환의 시기가 더욱 빨리 다가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어

- 강윤희, 최인아. 2018. “싱가포르 2017: 포스트-리관유 시대의 도전과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 김종호. 2020.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감염의 재확산과 이주노동자 문제.” 『서강동연』 3.
- 김종호. 2021. “싱가포르 다문화, 다인종 사회구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도전”. 『세계도시설명서』. 서울역사편찬원.
- 김희숙, 양영란. 2020. “싱가포르의 이원적 코로나19 방역 전략과 그 함의.” 『동아연구』 제39권 2호
- 김희숙, 김다혜, 김현경, 양영란, 유민지, 전제성. 2020. “코로나19에 맞선 동남아의 대응: 초기 대처과정의 잠정적 함의.” 『아시아연구』 23(2)
- 대한민국 통계청(KOSIS)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 (검색일자: 2022년 1월 5일)
- 박재우. 2021. “정의용,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예방 ‘트래블 버블 기대’.” 06.25. NEWS1 (검색일자: 2022년 2월 10일)
- 임시연. 2020. “싱가포르 2019 : 차기 총선과 국민 단합의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30권 2호
- 장용석. 2021. “한·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 지역 안보·국방협력 논의.” 12.23. NEWS1 (검색일자: 2022년 2월 10일)
-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정책자료
<https://overseas.mofa.go.kr/sg-ko/index.do> (검색일자: 2022년 2월 10일)
- 최인아. 2019. “싱가포르 2018: 4세대 리더십 전환 예고와 집권당의

도전과제.” 『동남아시아연구』 29권 1호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2021. 『해외출장 가이드 2021』

영어

- Ang Hwee Min. 2021. “‘Complete Strategy ready’ to gurantee quality of Yale-NUS faculty until 2025 closure: College Leadership.” 20 Sep 2021. *Channel News Asia*. (검색일자: 2021년 12월 25일)
-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1. Singapore Country Brief (검색일자: 2022년 1월 10일)
- Baharudin, Hariz. 2021. “S'pore committed to constructive ties with new Malaysian government: Vivian Balakrishnan.” *The Straits Times*. 13 Sep. (검색일자: 2022년 1월 12일)
- Barr, Michael. 2019. “Heng Swee Keat’s awkward start to succession.” *East Asia Forum*. 19 Dec (검색일자: 2021년 9월 3일)
- Brock, Joe and Chen Lin. 2021. “Singapore, Malaysia reopen land border amid worries over the Omicron variant.” *REUTERS*. 29 Nov (검색일자: 2022년 1월 12일)
- Cai Dexian. 2013. “Hedging for Maximum Flexibility: Singapore’s Pragmatic Approach to Security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POINTER, Journal of the Singapore armed forces*. vol.39, no.2
- Chatys, Mateusz. 2019. “Relations Between Singapore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Light of Donald Trump’s New Southeast Asia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Interdisciplinary Political and Cultural Journal*. Vol. 23, No.

- Chen Lin. 2021. “Singapore GDP growth to moderate in Q4 on Omicron woes: Reuters poll.” *REUTERS* 30 Dec (검색일자: 2021년 12월 30일)
- China Briefing. 2021. “China Relaxes Entry Restrictions for Foreigners Inoculated with Chinese Vaccines.” 16 May (검색일자: 2021년 9월 13일)
- Chong Ja Ian. 2021. “Addressing Foreign Interference in Singapore: Looking in the Right Places?” *Academia.SG* (검색일자: 2022년 1월 5일)
- Choong, William. 2020. “China-US Relations: Singapore’s Elusive Sweet Spot”, *ISEAS Perspective* No.80
- Cooper III, Cortez A. and Michael S. Chase. 2020. *Regional Responses to U.S.-China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 Singapore* -, RAND Corporation
- DOS(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 DOS. 2022. *Population Trends 2021*
- Dou, Eva and Shibani Mahtani. 2021. “China’s vaccine diplomacy stumbles as clinical trial data remains absent.” *The Washington Post*. 23 Mar (검색일자: 2021년 9월 13일)
- George, Cherian, Chong Ja Ian, Linda Lim and Teo You Yenn. 2021. “FICA’s Threat to Singapore academia.” *Academia.SG* (검색일자: 2022년 1월 5일)
- Guimaraes, Conrad. 2020. “Singapore’s 2020 Election: Explaining the PAP’s Stagnation.” *The Diplomat*. 5 Aug (검색일자: 2022년 1월 12일)
- Han Goh Yan. 2021. “Gender, political ideology have emerged as tribal markers driving identity politics globally: Lawrence

- Wong.” *The Straits Times*. 23 Nov (검색일자: 2021년 12월 30일)
- Chua Mui Hoong. 2021. “Leadership, not just for broker, needed to mediate identity politics.” *The Straits Times*. 3 Dec (검색일자: 2022년 1월 12일)
- Ho, Olivia. 2020. “Singapore GE2020: Minimum wage is a rung but the Progressive Wage Model is a ladder, says Tharman.” *The Straits Times*. 7 July (검색일자: 2021.11.20)
- Ives, Mike. 2021. “Singapore OKs China’s Sinovac Vaccine for Private Use.” *New York Times*. June 19 (검색일자: 2021년 9월 13일)
- Jaffe, Alexandra. 2021. “Harris meets with Singapore officials to begin Asia visit.” *AP News*. Aug 23 (검색일자: 2021년 9월 20일)
- Kang Wan Chern. 2022. “Asean, Singapore likely to benefit from US-China geopolitical tensions: Experts.” *The Straits Times*. 11 Jan (검색일자: 2022년 1월 13일)
- Koh, David. 2020. “Migrant workers and COVID-19.” *Occup Environ Med* 0:1-3.
- Kuok, Lynn. 2016. “The U.S.-Singapore Partnership: A critical element of U.S. engagement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Brookings Report*.
- Lai, Linette. 2021. “How best to bridge divides and strengthen a common national identity?” *The Straits Times*. 27 Nov (검색일자: 2021년 12월 30일)
- Lee Hsien Loong. 2021. *National Day Rally Speech*. Prime Minister’s Office Singapore. 29 Aug (검색일자: 2021년 12월 30일)

- Leow, Annabeth. 2021. "Singapore manufacturing confidence dips even as services sector hopes lift." *The Straits Times*. 29 Oct (검색일자: 2021년 12월 30일)
- Lim, Linda and Pang Eng Pong. 2021. "The closure of Yale-NUS: A loss for Singapore." *Academia.SG* (검색일자: 2022년 1월 5일)
- Lim, Linda. 2021a. "Racial preference: Bad for the economy, bad for business." *Academia.SG* (검색일자: 2022년 1월 5일)
- Lim Yan Liang. 2021. "\$33b set aside in Fortitude Budget, bringing Singapore's Covid-19 war chest to nearly \$100 billion." *The Straits Times*. 26 Mar (검색일자: 2022년 1월 13일)
- Lin, Ray Junhao, Tau Hong Lee and David CB Lye. 2020. "From SARS to COVID-19: the Singapore journey." *MJA* 212(11).
- Mcgregor, Grady and Eamon Barrett. 2021. "COVID vaccine passports to travel freely are still a dream-except in China." *Fortune*. 23 Jul (검색일자: 2021년 9월 13일)
- MOFA(Ministry of Foreign Affairs), Singapore
- MOFA. 2021.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Dr Vivian Balakrishnan's Participation in the ASEAN-G7 Foreign Ministers' Meeting." 12 Dec (검색일자: 2022년 1월 13일)
- MOH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https://www.moh.gov.sg/covid-19/vaccination>
- MOH Daily Report (검색일자: 2022년 1월 11일)
- MOH. 2021. "Female Muslim Staff in Public Healthcare Sector May Wear the Tudung with their uniform." 29 Aug (검색일자: 2022년 1월 13일)
- MOH Press Releases

- MOH Situation Report <https://covidsitrep.moh.gov.sg/> (검색일자: 2022년 1월 12일)
- MOM (Ministry of Manpower). Summary Table: Employment (검색일자: 2022년 1월 13일) <https://stats.mom.gov.sg/Pages/Employment-Summary-Table.aspx>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0.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1st Quarter
- MTI. 2020.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nd Quarter
- MTI. 2020.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3rd Quarter
- MTI. 2020.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4th Quarter
- MTI. 2020.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Year
- MTI. 2021.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1st Quarter
- MTI. 2021.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nd Quarter
- MTI. 2021.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3rd Quarter
- MTI Press Release. 2022. "Singapore's GDP Grew by 5.9 Per Cent in the Fourth Quarter of 2021 and by 7.2 Per Cent in 2021" (검색일자: 2022년 1월 11일)
- Ng Jun Sen. 2021. "TODAY Youth Survey: Majority believe racist episodes rising amid pandemic, further amplified on social media." *TODAY*. 12 Nov (검색일자: 2022년 1월 12일)
- Ong, Elvin. 2020. "Rethinking costs and the social impact." *Academia.SG*
- Ong, Justin. 2021a. "Population decline raises issues around Singapore society, identity." *The Straits Times*. 30 Sep (검색일자: 2022년 1월 11일)
- Ong, Justin. 2021b. "Singapore, China defence ministers reaffirm longstanding ties, cooperation." *The Straits Times*. 8 Jun (검

색일자: 2022년 1월 12일)

- Ong, Justin. 2021c. “Who will be Singapore’s next PM with Heng Swee Keat stepping aside?” *The Straits Times*. 23 Apr (검색일자: 2021년 12월 30일)
- Ooi, Peter and Melody Madhavan. 2021. “First CHS, now CDE and New College: A Tale of three top-down decisions.” *Academia.SG* (검색일자: 2022년 1월 5일)
- Ortmann, Stephan and Mark R. Thompson. 2016. “China and the “Singapore Model””, *Journal of Democracy*, Volume 27 Number 1 January
- Osman, Maliki. 2021. “Opening Statement for Presentation of Singapore’s Initial Report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8 Nov.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in Geneva, Switzerland (2022년 1월 12일)
- Ovais Subbani. 2022. “Singapore economy beats expectations to grow 5.9% in Q4 and 7.2% in 2021.” *The Straits Times*. 3 Jan (검색일자: 2022년 1월 5일)
- Pang Eng Fong and Linda Lim. 2020. “Labour in Singapore’s post-COVID-19 economy.” *Academia.SG*
- Prime Minister’s Office. 2021. “38th & 39th ASEAN Summits and Related Summits.” (검색일자: 2022년 1월 13일)
- Prime Minister’s Office. 2021. “Statement from the 4G Team on 8 April 2021” (검색일자: 2021년 12월 30일)
- Rei Kurohi. 2021. “5 Things to Know about Fica, the law to counter foreign interference.” *The Straits Times*. 5 Oct (검색일자: 2022년 1월 5일)

- Reuters. 2017. "Singapore PM Lee says ready to step down in couple of years; no successor picked yet." *REUTERS*. Oct 20 (검색일자: 2021년 12월 3일)
- Shin, Hyun Bang, Murray Mckenzie and Do Young Oh. 2022. *Covid-19 in Southeast Asia - Insights for a Post Pandemic World* -. LSE Press.
- Sim, Royston. 2018. "Heng Swee Keat picked as PAP's first assistant secretary-general, indicating he will be next PM." *The Straits Times*. Nov 23 (검색일자: 2021년 9월 3일)
- Soon, Carol and Neo Yee Win. 2021. "The Role of Digital Media in Singapore's General Election 2020." *Southeast Asian Affairs 2021*. ISEAS.
- Tan, Eugene K.B. 2021. "Singapore in 2020: The "Crisis of a Generation" - Challenges, Change and Consequences." *Southeast Asian Affairs 2021*. ISEAS.
- Tham, Davina. 2021. "'New Normal': 7 ways Singapore is moving towards living with COVID-19." *Channel News Asia*. 09 Oct (검색일자: 2021년 12월 30일)
- Tham Yuen-C. 2019. "Cabinet reshuffle: Heng Swee Keat best person to take over as PM, says Tharman." *The Straits Times*. Apr 23 (검색일자: 2021년 9월 3일)
- Tham Yuen-C. 2021. "New Forms of tribalism can take root and affect politics in Singapore: Lawrence Wong." *The Straits Times*. 23 Nov (검색일자: 2021년 12월 28일)
- The Economic Times. 2021. "Singapore and India further cement bilateral relations despite challenges posed by Covid-19 pandemic." *The Economic Times*. 27 Dec (검색일자: 2022년

1월 11일)

- The Straits Times*. 2020. GE2020: Full Results
<https://www.straitstimes.com/multimedia/graphics/2020/07/singapore-general-election-ge2020-live-results/index.html>(검색일자: 2021년 12월 23일)
- The Straits Times. 2021. “DPM Heng Swee Keat steps down as 4G leader: Read his letter to PM Lee Hsien Loong.” *The Straits Times*. Apr 9 (검색일자: 2021년 9월 3일)
- The Straits Times Tracking Covid-19
<https://www.straitstimes.com/multimedia/graphics/2020/02/singapore-virus-cases/index.html?menu> (검색일자: 2022년 1월 11일)
- Thiagarajan, Ruby. 2020. “Racism and Xenophobia Amid a New Epidemic.” *New Naratif*. 5 Feb (검색일자: 2021년 12월 25일)
- UN CERD. 202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05 Session (15 Nov 2021 - 03 Dec 2021)
- U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17; 2019; 2020
- Weiss, Meredith L. 2021. “Liberal Arts, University autonomy and expectations of activism” Yale-NUS in context.” *Academia.SG* (검색일자: 2022년 1월 5일)
- Wong, Lawrence. 2021. “Speech by Minister for Finance Lawrence Wong at IPS-RSIS Conference on New Tribalism and Identity Politics.” 23 Nov. Ministry of Finance (검색일자: 2022년 1월 11일)
- Wong Pei ting. 2019.“Older generation of S'poreans not ready for

- non-Chinese PM: Heng Swee Keat.” *Today*. Mar 29 (검색일자: 2021년 9월 3일)
- Wong, Yasmin. 2020. “COVID 19 and Sinophobia in Singapore.” *RSIS Commentaries*.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Yong, Nicholas. 2016. “Most Singaporeans would choose Tharman as the next Prime Minister: survey.” *Yahoo News*. Sep 26 (검색일자: 2021년 9월 3일)
- Yong, Rachel Au. 2016a. “DPM Tharman rules himself out as next prime minister: ‘I am not the man for PM.’” *The Straits Times*. Sep 28 (검색일자: 2021년 9월 3일)
- Zain, Syawalludin. 2021. “Joyful Reunions as Malaysia-Singapore Land Border Reopens.” *The Diplomat*. 29 Nov (검색일자: 2022년 1월 12일)

중국어

- “新加坡总理李显龙会见王毅”, 2021.09.15., 《人民日报》 (검색일자: 2021년 9월 20일)
- “中国新加坡签署《防务交流和安全合作协议》国防部介绍相关情况”, 2019.10.31., 《海外网》 (검색일자: 2021년 9월 20일)

(2022.01.16. 투고, 2022.01.21. 심사, 2022.02.17. 게재확정)

<Abstract>

Singapore 2021: Searching for ‘New Normal’ in COVID-19 pandemic

Kim JongHo
(Sogang University)

Singapore, a small-sized city-state in Southeast Asia, has experienced more dramatic changes than others of the globe while the COVID-19 pandemic swept over worldwide during 2020-2021. In the middle of those changes, Singapore prepares for the post-pandemic structural improvement, so-called the ‘New Normal’. Two big events in politics, the General Election in 2020 and the resignation of Heng Swee Keat who was nominated as the fourth Prime Minister after Lee Hsien Loong gave us some tips on the future direction of Singapore. The positive performances of two opposite parties - the Worker’s Party and the Singapore Progress Party - show an indication that the PAP-led political landscape in Singapore would be changing with the role of the digital media. The step down of Heng Swee Keat caused curiosities on the next younger leader, but Lee Hsien Loong, the current Prime Minister would stay in power so far as the height of the pandemic.

On the one hand, it has been focused by politicians, academia, and the public that there would be a need to re-arrange diverse issues on inter-racial harmonies, such as demographic structure and stagnation, the

inflow of foreign labours, and concept on the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community. They, ultimately, began to wonder what direction Singapore's Chinese-led multiethnic social structure and inter-racial harmony would go and how 'Singaporean national identity would be re-conceptualized.

In the case of the economy, it is unavoidable to launch the manufacturing-centered reorganization, which has led the actual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for the last two years. It is clear, in particular, that Singapore would focus on increasing demand for the global semiconductor and biomedical sectors. The major characteristic of the foreign relation was the stronger focus on the multi-lateral relations amid the lopsided alliance with the US, especially on the cooperation in the defense and security sector with India, Australia, and China.

Key Words: Singapore, PAP, WP, New Normal, US-China Relation, Singapore demographic structure, Singapore national identity